

장강의 역사를 이룬 중국의 고전

노자·장자·불경까지 아우르는 제자백가의 풍부한 수량

중국 역사에 영향력을 발휘해온 책은 선진시대의 제자백가에 넓게 뿌리를 뻗치고 있다. 중국 사상의 원류를 만들고 풍요롭게 일궈온 이들은 본래 관료 지망의 지식인이어서 그들의 책은 현실문제, 특히 정치이념과 깊이 연관을 맺어왔다. 그 때문에 유교가 국정원리로 굳어진 현대 이래 근세까지 중국의 거의 모든 책은 사서와 오경을 재해석한 것들이다. 혹자는 이같은 학문 풍토로 중국 사상이 이론적 순수성이나 깊이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지만 노자·장자, 불경까지 아우르는 제자백가의 풍부한 수량은 중국을 대국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중국은 긴 역사만큼이나 책이 많다.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기원전 25세기부터 1986년 이전까지 출판된 도서수가 103만9706종. 물론 이것은 도서의 수량에 불과하며 이밖에 많은 문헌이 남아 있다. 갑골문헌, 명문자료, 석각자료, 간독과 돈황유서, 투르판문서, 역사당안 등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해진다. 이 가운데 중국의 첫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상서(尙書)》다. 하·상·주·요·순 등 고대 왕조의 성쇠를 통해 덕을 행하고 사람을 위하는 정치를 베풀리는 이 책도 전통대로 정치이념과 무관하지 않은 셈이다.

생활의 규범 제공한 유교윤리

근대 인쇄술이 보급되기 전, 가장 많은 책이 쏟아진 때는 춘추전국시대일 것이다. 각국의 군주들이 혼미한 시대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을 찾던 시대상이 활달한 정신을 제자백가로 끌어낸 것이다. 잘 알려진 중국의 고전은 거의 모두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중국 역사의 근간 이념이 되는 유가를 제외하고 줄곧 사랑받은 책은 '기이한 책'으로 불리는 《노자》와 노자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장자》다.

누가 저자인지도 분명치 않은 《노자》는 한나라 이후에는 《도덕경》으로 불렸는데, '도(道)'를 처음으로 철학적 범주로 올려놓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이 책은 꼭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심오하고 풍부한 사상을 함축한 시로 읽

어도 무방하고, '도를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나 '도는 하는 것이 없으면서 또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등 수수께끼 같은 말들은 끊임없는 사색을 불러낼 만큼 신비롭다. 우화적인 형식이 도입된 《장자》는 '도'를 우주의 근본으로 정확하게 규정했다. 노자의 무위사상은 한나라 초기에 "무위로써 다스린다"는 정치 이념의 철학적 기초가 돼 통치자의 필독서로 자리잡았다.

《노자》·《장자》는 우리에게도 인기가 높아 원서를 번역한 것 외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해설서가 많이 출간됐다. 그동안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굿모닝 장자》 등이 있었는데, 최근 중국 예배림과 우리나라 울곡 이이의 노자 해설을 묶은 《도덕경에 대한 두개의 강의》(박종현 편역, 서해문집)와 《다시 쓰는 장자 바보새 이야기》(이상수, 길), 《빛으로 쓴 열의 노래, 노자》(류영모, 두레), 《장자가 노자를 이야기하다》(임어당, 자작나무) 등이 나왔다.

하지만 한 무제가 유교를 중용하기로 함에 따라 유학이 독존하는 시대가 온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물론 동양사회 전체를 거의 2천년 동안 지배하게 되는 책이 바로 '오경'이다. 물론 오경이 성립된 것은 한나라 이전이다. 하지만 그냥 '책'과 정치·윤리의 기본원리를 제공하는 인류생활의 영원한 규범을 의미하는 '경'은 다르다.

《주역(周易)》·《서경(書經)》·《시경(詩經)》·《예경(禮經)》·《춘추(春秋)》의 오경은 모두 공자가 편찬, 저술한 것으로 전해진



오늘날 중국의 거대한 사상원류의 바탕에는 늘 새롭게 해석되는 유가의 사상이라는 뿌리가 있다.

다. 이 가운데 《주역(周易)》은 상·주 교체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역경(易經)》과 공자가 쓴 것으로 전해지는 《역전(易傳)》으로 이뤄졌다. 앞의 책은 점술서요, 뒤의 것은 역사·사상서로 구분하지만, 어쨌든 과학과 철학을 아우른 동양 정신의 원형으로 후대의 수많은 사람이 주석을 달 정도로 많이 읽히고 연구됐다.

그 가운데 왕필이 주를 단 《주역》은 역대 최고의 해설서로 불린다. 불과 나이 20세 전후에 붙인 이 주석은 《주역 왕필주》(길)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소개됐다. 특히 《주역》은 역사의 전환기마다 늘 새롭게 읽혀 중국 고전 가운데 가장 즐겨 번역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출간된 것만 거의 80여종 가운데, 단순히 점 보는 책으로 접근한 것도 많아 내용의 질도 그 중수만큼이나 천차만별이다.

한나라를 말하면서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빼놓을 수 없다. 루쉰이 "역사가들이 부른 만고에 빛날 노래이자, 운(韻)이 없는 굴원의 '이소(離騷)'"라고 찬탄한 《사기》는 고대의 황제(黃帝)부터 한 무제까지 약 3천년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최초의 기전체 역사서다. 중국 역사의 진정한 발원지로 가치가 높은 이 책은 잘 알려진 대로 사마천이 궁형의 고통과 치욕을 견디며 16년 동안 쓴 52만자의 대작이다.

당송 이래 문사 중에 《사기》를 숙독하지 않은 이가 없으며, 특히 사회 각계각층, 각

방면의 중요한 인물 및 소수민족과 주변국가의 역사를 기술한 '열전(列傳)'의 전기는 현대문학에까지 짙은 영향을 남겼다. 우리나라에도 이 흥미로운 역사서는 여러 형태로 번역돼 나왔는데 독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소설적 구성이 돋보이는 인물 이야기는 최근에도 《소설 사기》(김병충, 문예출판사), 《인물로 읽는 사기》(전3권, 엄광용 엮음, 새로운사람들) 등으로 나와 관심을 끌었다.

중국문화 속에 용해된 불경의 생명력

한나라 후기에 들어서면 유교 독존이 서서히 흔들리면서 유·불·도교가 공존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불교가 인도로부터 전래돼 서기 67년에 처음으로 한역 불경이 나오는데, 수나라 때 와서 불경 번역이 점차 활발해진다. 수나라 이후 400년, 특히 당나라 시기에 이르면 불교는 중국 본래의 문화와 융합해 교종·선종으로 나뉘어 여러 교파가 등장하고, 교리도 체계화된다. 이때 나온 책이 혜능(慧能)의 《단경(壇經)》인데, 이 책은 혜능이 선종의 6대조로써 광동 조계의 보림사에서 30년 동안 강법한 것을 제자인 법해가 수집해 기록한 것이다.

"백정이라도 소 잡는 칼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는 '불성론(佛性論)'을 확립한 《단경》은 남종 불교를 중국 선종의 정통이 되게 했고, 책은 남종의 6대조가 만든 것이라 해서 《육조단경》으로 불리게 됐다. 불교가 폭넓게 일반 대중으로까지 확

『리더스 라이프』는 기독교출판시장을 겨냥한 광고 매체로 적합합니다

아름다운 삶, 더 좋은 문화를 가지고
리더스 라이프가 첫 인사 드립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는 기독교 평신도를 위한 잡지 『리더스 라이프』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진솔하게 그려가는 이 잡지는 미국 『Christian Reader』의 기사를 제공받고, 별도로 한국관련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잡지의 발행은 LA에 있는 선교단체인 ACTS29와 협력하여 한국과 미국의 교회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출판 시장에서는 대개의 잡지들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스 라이프』는 20대 이상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출판물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될 것입니다.

리더스 라이프에 적절한 광고

- 성경 · 찬송 · 주석성경류
- 평신도를 위한 단행본
- 찬양음반 · 비디오
- 크리스천 팬시 상품류
- 신학대학 입학 안내
- 대기업 공익광고



- ▶ 광고를 연간으로 계약하시면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 ▶ 광고문의 : T.2264-7211~3 SP 사업부 홍보담당 심동교

예영커뮤니케이션 · CUP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93 장충빌딩 B동 3층
출판부 T.2264-7211~3 출판유통사업부 T.830-8566 F.830-8567 도모사업부 T.851-2248
CUP는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위탁 경영하는 출판사입니다

대되면서 불교문화는 세속화되고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단경》의 생명력만큼은 중국 문화 속에 용해돼 송·명철학의 중요한 사상적 근원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인 다카가와 다카가 주해한 것을 옮긴 것과 현담·최도문 등이 편역한 《육조단경》이 나와 있다. 또 그 단편들을 선시모음이나 스님들의 글 속에서 계승으로 만날 수 있다.

당을 잇는 송나라는 다시 유교가 지배하는 시기가 된다. 하지만 이 시기의 유학은 한나라의 유학과 달리 오경이 아닌 '사서(四書)' 중심의 신유학으로 흔히 '성리학' 혹은 '주자학'으로 부른다. '주자학'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사서 즉, 《논어(論語)》·《맹자(孟子)》·《대학(大學)》·《중용(中庸)》의 주희 해석을 위주로 하는 학문이다. 주희가 죽기 전까지 고쳐쓰기를 계속했다는 《논어집주》·《맹자집주》·《대학장구》·《중용장구》 등 《사서집주(四書集注)》는 송나라 이후 근세까지 중국에서 가장 오래, 널리 읽힌 책이다.

공자의 어록인 《논어》는 한나라 이후 모든 중국인이 필독서로 자리잡아 '중국의 성서'로 일컫는다. 《논어》를 비롯한 사서의 국내 출간도 그 이력이 화려하다. 원본 번역만 《논어》가 90여종, 《맹자》가 80여종으로 해설서, 영인본, 공자 등의 인물전기까지 하면 그 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이다. 유학과가 있는 성균관대가 사서오경의 영인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도 특기할 만하다.

명대에는 송의 성리학을 비판한 양명학이 등장하는데, 양명학의 기초를 세운 왕수인은 문집 《양명전서》를 통해 인간평등관에 바탕을 둔 주체성 존중의 철학을 확립하고, 만물 일체의 이상사회 실현을 지향했다. 《양명전서》 가운데 《전습록(傳習錄)》은 제자인 서애가 엮은 어록과 서간문이다. 조선의 통치이념으로 자리잡은 성리학을 비판한 것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았지만 양명학의 주체사상이 독립운동과 연결돼 한말 정인보가 《양명학연론》을 저술하기도 했다.

새로운 변혁과 함께한 사상서

명이 오랑캐인 청에게 망하자 한족은 그간의 사상에 깊은 회의와 반성을 거듭한다. 명말의 3유호로 불리는 왕부지·황중희·고염무가 그 선두주자들이다. 봉건사회의 심각한 위기와 새로운 사회적 변화 가운데 10여년간 항청투쟁에 투신했던 황중희는 《명이대방목(明夷待訪錄)》을 펴냈다. 그는 명의

쇠망이 봉건적 군주제에 있다고 파악하고 중국이 2천년간 지속해 왔던 봉건군주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또, 군주의 독단과 횡포를 막기 위해 의회제도 비슷한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책은 특히 역사를 유물론적 사관에 의해 해석하던 공산정권 시기에 근대민주주의 정신의 첫번째 기초로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청대에 가장 중요한 책의 유산은 고증학의 빛나는 결실인 《사고전서》다. 건륭제 때 주권의 건의에 따라 조성된 이 자료는 학술체계를 알 수 있는 자료로 모두 7만 8731권. 역대 중국의 모든 문헌을 정리해 각각 경(經)·사(史)·자(子)·집(集)으로 나누고 책마다 저자의 이력, 내용, 비평을 붙였다. 하지만 고증학은 '죽은 학문'이라는 중국 내부의 비판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법운동이 일어난다.

변법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강유위와 담사동으로 각각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 《인학(仁學)》을 펴냈다. 《신학위경고》는 강유위가 경서의 진위를 밝혀내기 위해 쓴 책으로 사상의 해방을 가져온 "사상계의 대폭풍"이었다. 이 책은 경서의 신성불가침의 위엄을 벗겨냈다. 하지만 유희의 고문서 조작설 등은 치밀해야 할 학술적 고증의 저작으로는 마땅치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중국 사상계에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 청일전쟁 패배 후 강유위와 함께 변법운동을 펼친 담사동의 《인학》은 세계 변화의 근원을 막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사회·정치적 속박을 격파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자국내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청대 이후의 책들은 우리나라에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다. 현격하게 달라진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가의 사상은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늘 새롭게 해석된다. 홍원식 교수(계명대)는 "중국의 학술사는 공자가 집인가, 힘인가를 끊임없이 재해석해 온 역사"라며 우리도 그 영향권 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건국대의 임동석 교수는 "중국의 대표적 고전으로 알려진 임어당의 책이나 서유기 등의 4대 기서는 올바로 평가되지 못한 것"이라며 상업적 기획에 의해 중국의 많은 책들이 소개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청말까지 문·사·철을 하나로 이해해온 중국의 전통이 서양의 분류체계에 의해 강제로 나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